

기능 다양한 롤 파렛트 주 생산품목

특허권 · 지적재산권 50건에 달해

오로물류기기(주)는 1977년에 설립된 고려공업(주)을 모태로 1986년에 설립되어 고객만족을 위한 무한의 신상품 개발과 정착이라는 경영이념을 걸고 물류기기 생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창업초기부터 오로물류기기(주)는 생산품의

100%수출이라는 독특한 사업 전략으로 가격과 품질이 까다롭다는 일본시장에 진출하여 각고의 노력끝에 일본 최대의 식품유통회사인 JUSCO 사에 U형 대차를 수출하면서 일본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품질과 기술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물류기기 생산에 매진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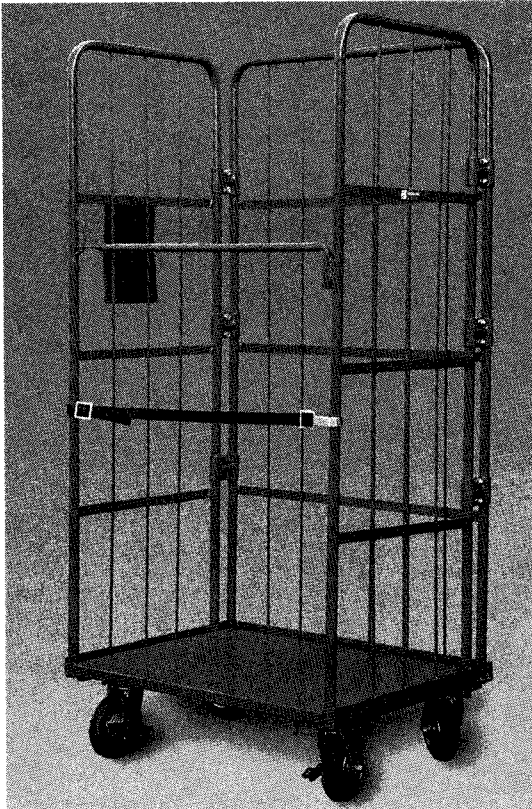
또한 신상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경량형 대차/접철식 파렛트/하부 개방형 파렛트 등 보다 경제적이고 기능이 우수하며 사용에 편리한 각종 물류기기를 개발하였으며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 보유가 50건에 달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최근 출원건수만 하더라도 62건이 나 된다.

또한 생산방식의 자동화를 추진한 결과 95년 5월에는 용접로봇 10기를 도입하였으며 정전 분체도장 자동화라인을 설치하여 제작 전공정의 50%이상이 완전자동화 생산되고 있다.

그 결과 대량생산체제를 확립하였고 품질의 향상과 함께 납기의 단축 · 불량률의 감소 등 물류기기 제조의 새로운 변혁을 꾀하고 있다.

[표 1] 오로물류기기 파렛트의 규격예

종류	폭×장×고
대차류	1100×800×1700
	950×800×1700
	800×600×1700
파렛트류	1100×1100×1000



▲ 오로물류기기(주)의 L형 롤 파렛트

[표 2] 경량화된 대차 비교

규격	종래	경량화후	경량화율	
LRC 1	1100×800×1700	58kg	48kg	17%
LRC 2	950×800×1700	53kg	42kg	21%
LRC 3	800×600×1700	45kg	35kg	22%

오로물류기기의 주 생산품목은 흔히 대차로 불리는 ROLL PALLET가 주품목인데 형태에 따라 U형 대차/L형, 대차/H형/Z형 등이 있다.

컴비네이션 파렛트는 목재나 플라스틱 등의 평파렛트에 스틸 구조물을 조합하여 박스형태/CART형태 등으로 기능을 향상시킨 것인데 제품의 무너짐을 방지하고 파렛트를 다단 적재 할 수 있어 창고 등 공간효율을 높이고 OCP100, 200등 다양한 형태의 모델이 있어 적용분야가 폭넓다.

부품 파렛트/메쉬 파렛트/타일 파렛트 등의 범용 파렛트와 타이어 파렛트 등의 전용 파렛트 등은 거의 스틸로 제작되며 경량화/접철식 구조로 된 것이 특징이다.

오로물류기기의 생산품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 경량화: 사용상 기능과 강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중으로 설계 제작되어 파렛트의 본래 목적인 적재물의 적재 효율을 높인다.

▲ 접철식(포갠식): 사용하지 않을때의 대차나 파렛트는 절첩 또는 네스팅(포갠)식으로 설계되어 빈 용기의 보관을 최소화하여 창고나 작업장의 공간 효율은 물론 운반차량의 효율을 높여 물류비를 절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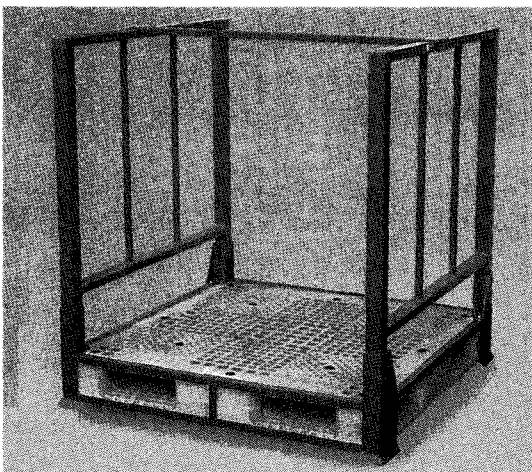
▲ 표준화·규격화: 대차류의 규격과 파렛트의 규격을 표준화함으로써 생산합리화, 품질향상, 비용절감, KS규격품 생산으로 유닛트로드 시스템 정착을 꾀하고 있다.

▲ 미려한 외관: 파렛트의 설계시 외관의 미적 감각을 살리고 분체도장·용융아연 도금 등의 표면처리를 통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오로가 최근 개발한 제품인 경량형 대차는 종래의 대차보다 경량화하므로써 차량 운송효율을 높이고 작업자의 작업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각종 현지 등의 기능을 향상시켜 작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DOOR/중간선반 등의 다양한 옵션품을 자유로이 탈부착 할 수 있어 기능이 더욱 향상되었고 사용범위도 더욱 폭넓어 졌다.

또한 접철식 OCP 500(컴비네이션 파렛트)는 종래의 구조에서 윈터치식 접철 구조로 개조시킴으로서 보관 및 이동시 부피를 최소화(현재 1/8)할 수 있어 보관 및 운송효율을 높였고 해외수출시 물류비 부담이 높아 애로가 많았던 점이 완전히 해소되어 해외 수출의 전망이 밝다. ☐



▲ 컴비네이션 파렛트